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이형종, 이한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보험학과

Hyung-Jong Lee(acemn0406@hanmail.net), Han-Duck Lee(handuck@hongik.ac.kr)

###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은퇴준비 | 은퇴설계 | 노후소득 | 사례연구 |

###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are ill-prepared for retirement due to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s result, are likely to get into poverty in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as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workers show the anxiety about retirement. Many pre-retirees worry that their retirement savings may not generate enough income in retirement, and the level of benefits paid in public pension is inadequate. Second, they are preparing for retirement in the areas of finance, health, working after retirement and social activity. Third, they are realistic and practical in retirement decisions makings. they are considering household budget downsizing, cutting education costs, the low-waged job choice and cash flow preference in retirement. The safety and reality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are top considerations. In conclusion, this case study shows that pre-retire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seeking diverse retirement solutions. We need to design integrated and practical retirement planning programs to support their specific retirement needs.

■ keyword : | Retirement Preparation | Retirement Planning | Retirement Income | Case Study |

## I. 서론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였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55~79세 중고령자의 44.1%는 월 평균 51만 원의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39.8%는 노후소득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1]. 2016년 3월 말 현재 은퇴가구의 60.5%는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은퇴가구는 22.4%였고, 생활비가 여유 있다고 대답한 은퇴가구는 8.7%에 불과했다[2].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201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2006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24.1%)보다 두 배 이상, OECD 평균치 12.4%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3].

OECD는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소득이 은퇴 직전 소득의 60~70%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금소득 대체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후에 적절한 공적연금 수준은 은퇴 전 소득의 53~60% 수준을 권고하였다[4]. OECD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15.2%로 OECD 국가 평균치 65.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5]. 실제로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훈·권형구(2016)는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이 20%정도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2028년 목표소득대체율 40%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이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소득 대체율이 낮은 원인은 한국의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요인도 있다[4].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시장도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는 0.8%로 나타나[6],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기능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전체 사업장은

1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대기업(87%)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반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장(30인 미만)의 가입률은 15%에 지나지 않았다[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 차이는 장래 근로자가 받는 노후소득의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미흡한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제도는 은퇴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소득 계층화가 일어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8].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인력자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9].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요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노후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충하는 노동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퇴직을 앞둔 중소기업 40~50대 중장년층의 은퇴준비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드러난 특징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와 은퇴준비 현황

중년기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년기에는 체력의 감퇴와 정서적 불안움을 느끼며, 풍부한 인간관계를 보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지만 자녀교육과 결혼비용 지출 등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10]. 은퇴시점에 임박한 중년층 근로자들은 생애주기상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부담을 지

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중년기는 자녀양육 의무를 마치고, 노후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갖고 있다[11]. 그러나 중년층 근로자들은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채 조기 퇴직으로 가족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변화를 경험한다[12].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중반에 조기 퇴직 후에도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30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후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13].

노동시장과 기업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은퇴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직장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은퇴생활을 걱정하지만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람은 46.4%였다. 장래 은퇴생활이 걱정되어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29.5%, 장래를 걱정하지 않지만 계획을 세운 사람이 10.8%, 10.8%의 직장인은 은퇴생활을 걱정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었다[12]. 은퇴준비는 50~60대 뿐만 아니라 20~30대 연령층부터 일찍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임재용(2008)은 30대부터 은퇴준비 시기라고 언급하지만, 실제 30대 연령층의 60% 이상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가 은퇴준비의 적절한 시기라고 했다[14]. 정운영 외(2009)는 20~30대부터 체계적인 은퇴설계와 구체적인 은퇴준비를 해야 하며, 은퇴 후 필요한 적정자산을 축적하고 필요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15].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전 국민은 재무, 건강, 여가, 관계의 4대 영역에 걸쳐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거나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다[16].

## 2. 은퇴준비 영역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안정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재무적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 2010년 베이비 부머의 은퇴를 시작으로 노후문제는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이 시점부터 일부 연구기관과 학자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에 관한 연구를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재무적 차원의 은퇴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건강, 일자리 등 비재무적 영역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 성인들의 재무적 은퇴준비를 다루었다. 홍성희 외(2007)는 40대 봉급생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연구하였다. 여성보다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17]. 여운경 외(2007)는 한국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을 분석하였다. 총 은퇴자금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충분한 은퇴준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 광인숙 외(2007)는 직장남성 445명을 대상으로 은퇴계획의 유형과 은퇴의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주택보유, 교육과 개인의 주관적 경제적 능력 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사전에 노후준비를 계획했으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12]. 차경옥 외(2008)는 20~30대의 50%가 은퇴 재무설계를 하고 있으며, 기혼자·30대·전문직·주택보유자가 재무설계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정운영 외(2009)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20~50대)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행동을 분석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보유할 경우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소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질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매월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금액이 높게 나타났다[20]. 전기연 외(2010)는 2008년 30~59세의 성인 723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의식과 노후준비 행동을 분석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노후준비 의식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보다 50대 연령대의 노후준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50대의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은 노후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21].

2010년 이후에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준비를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백은영(2011)은 베이비 부모의 은퇴준비 현황, 은퇴준비 여부와 은퇴준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 주택보유여부, 결혼상태, 가구주 여부, 소득, 재무상태 인식, 건강상태, 은퇴준비 방해요인 여부 등이 베이비 부모의 은퇴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경혜 외(2012)는 베이비부모의 은퇴에 따른 건강과 재무적 준비 요인을 연구하였다[23]. 정순돌과 이현희(2012)는 베이비 부모와 이전세대인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연구했다[24]. 백은영과 정순희(2012)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베이비 부모 2,196 가계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과 재정상태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25]. 박창제(2014)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조사,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베이비 부모의 재무적 노후준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모의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전 베이비부모의 공적연금 가입비율보다 낮게 나타났고,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비율은 전 베이비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6]. 정순돌(2015)은 1,021명의 베이비부모를 대상으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도로 구분하여 노후준비 행동을 분석했다[27].

박창제(2016)는 1,698명의 베이비붐 세대(53~59세)를 분석한 결과, 사적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베이비 붐 직전 세대에 비해 조금 높았을 뿐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적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낮아졌다. 이는 55세 전후의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되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28].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은퇴생활의 만족도,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상태를 은퇴생활의 행복지표로 인식하고, 은퇴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재무적·비재무적 은퇴준비 수준을 파악하거나 측정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웰빙과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 연구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9].

WHO(1995)은 웰빙을 물질적,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독립적, 영적 웰빙으로 구분하였다[30]. Felce et

al.(1995)은 물질적 웰빙, 생산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신체적 웰빙, 권리적 웰빙, 정서적 웰빙으로 구분하였다[31]. Cummins(1997)은 인간의 웰빙을 경제적 웰빙, 사회적 웰빙, 건강, 일과 직업활동, 관계적 웰빙, 안전, 정서적 웰빙으로 구분하였다[32]. Hagerty et al.(2001)은 경제, 공동체 소속감, 건강, 가족, 정서, 일, 안전, 친구와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33]. Schalock(2004)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을 물질적 웰빙, 인간관계, 신체적 웰빙, 정서적 웰빙, 자기개발, 권리, 사회참여, 자기확신으로 구분하였다[34].

김미령(2011)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준고령세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준비, 직장생활, 가정생활, 건강, 교육, 사회활동을 미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조사하였다[35]. 김동배 외(2012)는 고령 은퇴자(65세 이상) 1,429 명을 대상으로 건강, 재무, 사회참여, 직업능력, 여가의 5개 준비영역에 대한 성공적 노화,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36]. 최현자 외(2012)는 비재무적 측면의 은퇴준비 영역을 포함한 은퇴준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설정을 시도하였다. 20~60대 1,800명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일, 여가, 가족 및 친구, 마음의 안정, 주거의 7가지 준비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7가지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 지수를 계산하고, 각 영역의 지수를 종합한 것을 은퇴준비종합지수로 명명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은퇴준비종합지수는 58.3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준비수준은 건강영역(63.9점), 주거(63.8점), 가족 및 친구(63.7점), 마음의 안정(57.6점), 여가(56.1점), 재무(51.5점), 일(5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은퇴준비도를 보면, 은퇴시점에 임박한 40~50대의 은퇴준비가 부족했으며, 20~30대는 장래의 먼 일로 여기며 은퇴준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정부기관과 일부 연구기관은 은퇴준비와 관련된 삶의 영역을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 패널은 2007년 4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가족, 건강, 고용, 주관적 기대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37].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을 파악하고자 재무, 건강, 일, 여가, 관계, 주거로 구분하

여 조사하고 있다[38].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동으로 노후준비 4대 영역(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였다. 2012년 40~50대 중년층의 노후준비 비율은 45%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으며, 재무와 건강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다. 베이비 붐 전후 세대(39~66세) 751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된 결과, 건강 72.6점, 재무 68.8점, 여가 59.9점, 관계 54.9점으로 나타났다[39].

선행연구와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은 은퇴준비도와 은퇴생활에 대해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생활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영역은 경제, 관계, 건강, 심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29].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현황을 종합해보면, 2000년 이후 재무중심의 양적 연구에 치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은퇴준비상태,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은퇴자금의 적정성 등 재무적 은퇴준비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2010년 전후부터 비재무적 영역의 은퇴준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마다 삶의 영역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정신적·사회활동·건강영역을 은퇴준비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은퇴준비 영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퇴준비 영역을 가족, 직업, 건강, 자산운용 계획(재무), 사회참여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양적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은퇴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니즈와 경험을 세분화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은퇴준비 실태와 경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은퇴시점에 임박한 40~50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장기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의 은퇴준비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는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풍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할 때 강력한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교육, 빈곤, 실업, 약물중독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0]. 연구자는 사례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맥락에서 면밀하게 자료를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 사례연구 방법은 소규모 지역이나 매우 한정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본질적으로 사례연구는 한정된 사건이나 조건,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맥락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실제 생활현상을 탐구하고 조사한다.

Yin(2009)은 사례연구가 특정 현상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로서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다양한 증거를 이용하는 탐구 방법이라고 정의했다[41]. Gerrings(2004)는 유사한 단위의 보다 큰 집단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단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42].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다양한 차원의 은퇴준비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준비 과정의 경험을 통해 은퇴준비의 특징과 차별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준비 경험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50대의 급여생활자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40~50대 중장년층은 가족부양, 조기 퇴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남성이며, 만42~56세이다. 5명은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3명은 유통, 무역, 광고업의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연봉은 5,000~8,000만원 수준으로 대기업 연봉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2017년 4월 7일부터 5월 12일에 걸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직장, 자택, 커피숍 등 연구 참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인구학적 특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1회 1시간~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1회 1시간 정도의 추가 면담시간을 소요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심층면담의 경우 양적 연구에 비해 표집의 크기는 적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생성되는 자료 분석에 의해 연구대상의 표집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속적인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의 경계,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규정하는데 유용한 사람, 정보를 찾는 이론적 표집을 시도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비표를 통해 근로자의 소속업종, 급여, 자산, 재직기간, 직책 등의 속성을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이러한 소수사례의 심층연구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거주지역	학력	연봉 (만원)	직장/업종	직책/재직기간
1	48세	의정부시	대졸	6,000	○○산업(종업원 60명), 자동차부품업	이사/19년
2	53세	서울 도봉구	전문대졸	7,000	○○기업(종업원 54명), 조명기구제조업체	공장장/25년
3	55세	서울 강동구	고졸	6,500	○○공업(주)(종업원 350명), 농기계제조업체	이사/24년
4	42세	수원시	대졸	5,000	○○기획, 광고업	차장/14년
5	49세	수원시	전문대졸	6,500	○○유통, 의류도매 및 수입	경리부장/10년
6	47세	안양시	고졸	8,000	○○공업사(종업원 18명), 자동차정비	기술이사/23년
7	56세	서울 마포구	대졸	7,000	무역회사(종업원 43명)	이사/23년

8	43세	성남시	대졸	7,000	○○기계(공장기계 제작)	부장/15년
9	50세	동두천시	중졸	7,000	○○제작소(종업원 6명)	용접기사

### 3. 자료분석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방법 중 개방코딩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서 녹음한 자료를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자료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기록한 원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면서 130개의 중심개념을 도출하였다. 유사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중심개념을 묶어서 21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의미상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범주를 묶어 가족, 직업, 건강, 자산운용계획, 사회참여의 5가지 차원으로 은퇴준비 분야를 설정하였다. 중심개념, 범주, 차원을 반복해서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은퇴준비과정을 차원별로 배열하였다. 원 자료의 분석내용은 [표 2]와 같다.

###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확보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양해를 얻어 면담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동의를 획득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익명으로 하여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와 연구목적, 연구의 활용,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중단 권리 등을 상세히 알리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넷째, 연구자의 편견이나 경험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과정에서 개방형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청취하고, 점차 범위와 주제를 줄여가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메모를 활용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실무 담당자와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등 심층적인 자료수집에 노력하였다. 작성된 심층면담 내용은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반복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민간 연구기관의 은퇴분야 전문 연구원 2인,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위를 받은 박사 1인

의 감수와 조언을 받고, 연구의 절차·해석·방법 등의 오류를 시정하였다.

표 2. 은퇴준비 차원과 범주

차원	공통성	중심개념
가족	가족의 양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과 가족 양쪽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 (참여자 1)</li> <li>•직장과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지게 일했지만 남은 것은 배신감 (참여자 7)</li> <li>•애물단지 자식이지만 존재만으로 의지가 됨 (참여자 3)</li> <li>•노후의 힘든 삶은 자녀도 힘들게 하기에 잘 살아야 한다는 각오 (참여자 6)</li> <li>•고졸출신으로 이사까지 승진해 미련은 없으나 가족을 배려하지 못해 후회스러움 (참여자 3)</li> </ul>
	자녀 리스크 회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료나 선배들과 비교할 때 노후에 여유를 생각할 수 없는 현실 (참여자 9)</li> <li>•자녀들이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하도록 함 (참여자 1)</li> <li>•취업하지 못한 큰 아들의 사업자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참여자 7)</li> <li>•자녀가 25세가 되면 혼자서 살아가도록 할 것임 (참여자 8)</li> <li>•아들의 개인사업 의지를 꺾고 취직시킴 (참여자 9)</li> <li>•딸이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취직시킴 (참여자 9)</li> <li>•동생이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보증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참여자 9)</li> </ul>
	배우자에게 기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림 잘 하는 부인은 노후에도 소중한 보배 (참여자 2)</li> <li>•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아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함 (참여자 4)</li> <li>•요리를 배워서 퇴직 후에 힘들게 살아온 아내를 위해 살림을 도우려고 함 (참여자 6)</li> <li>•건강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음 (참여자 6)</li> </ul>
직업	일을 해야 하는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에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살고 싶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함 (참여자 1)</li> <li>•60세가 되어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막막할 때가 있음 (참여자 2)</li> <li>•우리나라에서는 늙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슬퍼짐 (참여자 4)</li> <li>•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것임 (참여자 8)</li> <li>•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음 (참여자 8)</li> <li>•70세가 넘도록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참여자 9)</li> </ul>
	재취업 일자리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유 있는 은퇴생활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은퇴 후 일자리라도 있기를 바람 (참여자 4)</li> <li>•퇴직 후 매월 100만원의 일자리라도 찾고 싶음 (참여자 7)</li> <li>•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비업무라도 할 생각 (참여자 5)</li> <li>•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면 식당의 주차관리 업무도 생각하고 있음 (참여자 9)</li> <li>•취업박람회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참여자 7)</li> <li>•재취업을 위해 고용지원센터나 고령자 인재은행 등에 사전에 등록함 (참여자 7)</li> <li>•퇴직 후 하청업체의 일자리를 생각해 보았으나, 직장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포기함 (참여자 1)</li> <li>•간병이 필요한 아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 (참여자 3)</li> </ul>

자격증 취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격증 중독자라고 취급받음 (참여자 5)</li> <li>•부인은 요리 관련 자격증을, 자신은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증을 취득함 (참여자 2)</li> <li>•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골라 준비함 (참여자 1)</li> <li>•아들이 보유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업할 계획을 세움 (참여자 3)</li> <li>•생계유지에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미래에 대비하여 실내건축(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었음 (참여자 6)</li> <li>•공인중개사를 취득했지만 장래에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참여자 4)</li> <li>•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용접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함 (참여자 7)</li> <li>•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공계 분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음 (참여자 4)</li> <li>•노후에도 용접기술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 (참여자 9)</li> </ul>	
다음 커리어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가 되고자 사이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함 (참여자 5)</li> <li>•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청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자 학원에 다니려고 했지만 포기함 (참여자 4)</li> </ul>	
은퇴 없는 자기 사업 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찍부터 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함 (참여자 8)</li> <li>•평생 일할 수 있는 자영업 선택하고 준비함 (참여자 4)</li> <li>•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없어졌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일할 수 있는 내 사업을 준비할 필요 (참여자 8)</li> <li>•다른 사람의 사업성공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일어남 (참여자 4)</li> <li>•사업에 성공하기 힘들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용 사업을 계획함 (참여자 3)</li> </ul>	
창업 분야 모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발생한 현금으로 사업을 계획함 (참여자 2)</li> <li>•창업관련 업무(인허가, 세무처리 등)를 배운 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 (참여자 2)</li> <li>•흔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하기보다 힘들어도 틈새시장을 탐색할 계획 (참여자 2)</li> <li>•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주하여 관광사업을 계획함 (참여자 3)</li> <li>•농사나 연금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내에게 창업을 권유함 (참여자 1)</li> <li>•아내와 함께 소규모의 분식집이라도 운영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참여자 4)</li> <li>•거주하는 아파트에 개를 키우면서 반려동물 사업을 고려하고 있음 (참여자 6)</li> <li>•농지에서 부업으로 애견사업을 계획함 (참여자 9)</li> <li>•단기적인 납품사업 계획을 포기함 (참여자 1)</li> <li>•현재 연소득의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함 (참여자 8)</li> <li>•은퇴 후에도 돈을 벌면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음 (참여자 8)</li> <li>•동일한 사업비전을 가진 지인들과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위험부담을 감소함 (참여자 8)</li> <li>•부인과 가족들은 귀농계획을 반대함 (참여자 1)</li> </ul>	
건강	가중되는 건강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능력이 떨어질 때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느낌 (참여자 3)</li> <li>•떨어진 체력을 생각할 때 장래 생활이 더욱 불안해짐 (참여자 9)</li> <li>•노후생활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함 (참여자 5)</li> </ul>
	노후 건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양과 운동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참여자 7)</li> <li>•금연, 금주를 하며 열심히 운동을 해온지 5년이 지</li> </ul>

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났음 &lt;참여자 2&gt;</li> <li>•노후에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lt;참여자 2&gt;</li> <li>•여러 종류의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노후 의료비 지출에 충당할 계획 &lt;참여자 5&gt;</li> <li>•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장래 늙으신 부모의 의료비에 충당하고자 함 &lt;참여자 8&gt;</li> </ul>	
자산운용계획	가족부양으로 인해 노후빈곤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딸들의 결혼비용으로 저축금액을 전부 사용한 후에 아무 것도 없음 &lt;참여자 2&gt;</li> <li>•딸들이 결혼한 후에는 심적으로 부담감이 적어짐 &lt;참여자 2&gt;</li> <li>•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아들과 딸의 결혼비용을 걱정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음 &lt;참여자 3&gt;</li> <li>•주택을 팔아서 자녀의 결혼비용에 충당한 고향선배의 처지가 나의 장래 모습이라고 생각됨 &lt;참여자 1&gt;</li> <li>•딸의 유학비용을 충당하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음 &lt;참여자 5&gt;</li> <li>•회사의 중간정산 퇴직금액을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여 장래 노후생활이 불안함 &lt;참여자 5&gt;</li> <li>•자녀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lt;참여자 4&gt;</li> <li>•늙으신 모친의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로 인해 이중의 생활고통을 겪고 있음 &lt;참여자 9&gt;</li> <li>•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아내의 증병치료를 위해 모든 재산을 사용함 &lt;참여자 7&gt;</li> <li>•맞벌이를 통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였으나, 장래에는 빈곤한 노후생활을 보낼 것 같음 &lt;참여자 9&gt;</li> <li>•50대 초에 퇴직한 후 60세 초 연금수령시기까지 공백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움 &lt;참여자 5&gt;</li> </ul>
	자녀부담에서 벗어 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고액과의 비용보다 나의 노후자금이 더 중요함 &lt;참여자 4&gt;</li> <li>•부인과 아들의 호주유학 희망을 확고하게 거절함 &lt;참여자 4&gt;</li> <li>•자녀의 장래에 많은 기대를 갖지 않고, 과도한 교육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계획 &lt;참여자 6&gt;</li> <li>•대출을 받아 자녀의 부족한 결혼비용을 충당하지 않을 계획 &lt;참여자 9&gt;</li> </ul>
	소비 줄이고 저축 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을 벌 시간은 짧고, 노후자금의 지출 기간이 늘어나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함 &lt;참여자 6&gt;</li> <li>•지출을 줄여 경제적 여건에 맞는 생활을 계획함 &lt;참여자 1&gt;</li> <li>•절약하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유지함 &lt;참여자 5&gt;</li> <li>•생활고통 때문에 자살한 선배의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지출을 줄여나감 &lt;참여자 6&gt;</li> <li>•퇴근 후 아내의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10억원의 노후자금을 저축할 계획 &lt;참여자 6&gt;</li> <li>•많지 않더라도 저축금액을 늘려나가면 심리적 불안감이 없어짐 &lt;참여자 6&gt;</li> <li>•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임 &lt;참여자 8&gt;</li> <li>•퇴직 후 다시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저축함 &lt;참여자 9&gt;</li> <li>•재테크에 운수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함 &lt;참여자 3&gt;</li> </ul>
	일찍 준비 못해 후회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세부터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학습을 시작함 &lt;참여자 4&gt;</li> <li>•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관리하였지만, 나의 자산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함 &lt;참여자 5&gt;</li> <li>•저축과 연금이 부족한 데도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돈을 모으지 않은 것을 후회 &lt;참여자 3&gt;</li> <li>•일찍 전역하여 직업군인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후회됨 &lt;참여자 3&gt;</li> </ul>
	쥐꼬리만한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액이 너무 적어 생활비에 충당하기 어려움 &lt;참여자 1&gt;</li> <li>•국민연금은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단으로서 다른 소</li> </ul>

사회참여	복지제도보다 자기노력에 의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을 받는 노인이 아니지만, 후보자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공약을 관심을 가짐 &lt;참여자 4&gt;</li> <li>•노인복지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 입후보자에게 표를 던짐 &lt;참여자 9&gt;</li> <li>•회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복지제도의 개선을 바라지 않음 &lt;참여자 9&gt;</li> <li>•연금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여 준비하는 중요함 &lt;참여자 6&gt;</li> <li>•자녀와 국가는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 &lt;참여자 7&gt;</li> </ul>
	연금으로 노후생활 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을 늦게 받으려고 계획함 &lt;참여자 5&gt;</li> <li>•개인연금에 가입했지만, 주택연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lt;참여자 6&gt;</li> <li>•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가 심하게 반대함 &lt;참여자 7&gt;</li> <li>•아들이 원하는 유학계획을 들어주지 않고, 개인연금에 가입함 &lt;참여자 7&gt;</li> <li>•가계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 부부 종신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함 &lt;참여자 5&gt;</li> <li>•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안정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고 함 &lt;참여자 8&gt;</li> </ul>
	안전한 투자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수를 줄여서 여유 현금을 마련함 &lt;참여자 9&gt;</li> <li>•되도록 현금자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함 &lt;참여자 1&gt;</li> <li>•저축은행의 부도로 인해 1억원 이상의 큰 손실을 경험한 후 안전한 은행예금을 선택함 &lt;참여자 6&gt;</li> <li>•부동산보다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 &lt;참여자 2&gt;</li> <li>•높은 금리에 현혹되지 않고,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상품에 자금을 투자함 &lt;참여자 2&gt;</li> <li>•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돈을 운용하고 싶음 &lt;참여자 5&gt;</li> <li>•여유자금이 관리되면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자신을 분산하여 관리할 계획 &lt;참여자 5&gt;</li> <li>•혼자서 관리하기보다 전문가와 자주 상담하면서 조언에 의존함 &lt;참여자 5&gt;</li> <li>•재무설계사의 조언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좋게 해석하고 준비해 나감 &lt;참여자 6&gt;</li> </ul>
	인간관계 개선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에 돈보다 중요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 &lt;참여자 2&gt;</li> <li>•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lt;참여자 5&gt;</li> <li>•성공한 고교 동창생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lt;참여자 3&gt;</li> <li>•사람의 진실성보다 이익을 고려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음 &lt;참여자 4&gt;</li> <li>•사회관계망의 교제보다 진실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lt;참여자 8&gt;</li> </ul>
	여가활동 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원봉사를 계획함 &lt;참여자 5&gt;</li> <li>•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로 스포츠 댄스를 배움 &lt;참여자 5&gt;</li> <li>•순해설사나 문화재 해설사로서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고 싶음 &lt;참여자 6&gt;</li> <li>•사전에 동물 조련사 자격을 취득함 &lt;참여자 7&gt;</li> <li>•1만 시간 투자원칙에 따라 요리 전문가가 되려고 투자하고 있음 &lt;참여자 8&gt;</li> <li>•퇴직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할 계획 &lt;참여자 5&gt;</li> <li>•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컴퓨터를 배워둠 &lt;참여자 9&gt;</li> </ul>



## IV. 연구결과

### 1. 가족 차원

#### 1.1 가족의 양면성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서글퍼하지만, 가족을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의지처로 생각하였다. 참여자 1은 직장에서 퇴직 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3은 재산이 적고 자녀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노후생활이 불안하지만, 성실한 자녀는 노후에도 의지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참여자 6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잘 살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도 뭐 내가 돈도 없고 뭐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식새끼가 아직은 취직은 못했지만 성실하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애가 있으니까 마음 한편으론 든든해요 뭐 우리 또 부자가 힘 합치면 뭐 굶어야 죽겠느냐 그런 생각 하나까 또 든든하고” <참여자 3>

#### 1.2 자녀리스크 회피하기

참여자 1은 장래 자녀의 취업불안을 우려하여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인생의 꿈보다 현실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자녀 뒷바라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참여자 9는 딸의 대학원 진학을 억지로 말리고 취업을 시켰다. 참여자 7은 취업하지 못하고 사업하겠다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참여자 9는 대학졸업 후 사업하려는 아들을 급여생활자로 취직시켰고, 사업하는 동생의 대출보증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참여자 8은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25세가 되면 독립시키려고 했다.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아직 독립을 못했어. 나이도 물론 어리죠 내 꿈이 뭐냐면 25세 되면 애네들이 직업이 있든 없든 독립시킬 거예요 니 능력대로 살아라 애들한테 냉정하겠지만 애들 삶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립심을 키워 줘요” <참여자 8>

#### 1.3 배우자에게 기대하기

참여자 2는 생활력이 강한 배우자는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참여자 4는 자녀양육 비용에 큰 부담을 갖고, 배우자가 맞벌이를 통해 약간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참여자 6은 퇴직 후 요리를 배워 고생한 배우자를 도우며 살림을 하려고 했다. 배우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마누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은퇴 후에는 돈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마누라 보면 또 든든하기도 해요 마누라는 진짜 생활력 있고 악착같은 여자거든요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심적으로 의지가 되니까 제일 큰 재산이다, 가장 든든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여자 2>

### 2. 직업 차원

#### 2.1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참여자 1은 퇴직 후에 가족과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70세,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했다. 한편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 8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에 의지하여 노후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2, 4, 9는 현실적으로 60세, 70세가 넘도록 일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한심스럽고 슬프게 받아들였다. 참여자 8은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인들 꿈이 연금 받는 거보다 월세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금융자산이 많으면 이자를 받을 거고 부동산이 많으면 월세 받아 생활하겠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되는 것도 어렵고, 저는 애시 당초 그런 생활 꿈을 접었죠. 힘 닿는 데까지, 능력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 갖고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힘이 떨어지면 그동안 번 돈으로 사는 거구.” <참여자 8>

## 2.2 재취업 일자리 찾기

참여자 4는 한국에서는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 7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재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부지런히 탐색해 보았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참여자 5, 7, 9는 소득이 적은 일자리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의 경비업무,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관리 업무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참여자 7은 재취업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령자 인재은행과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취업기회를 찾고 있었다. 참여자 1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싶지만 후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포기했고, 참여자 3은 부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재취업을 포기하였다.

“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주택 연금은 저렇고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개인연금 조금 부은 거 있고 국민연금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수족 움직일 때까지 한 달에 백만 원 만 받아도 이거 사회참여나 뭐 이런 거 아닌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보태도 살 수가 있으니까. 아까 뭐 용접 기술 배우긴 배웠는데 진짜 백만 원만 쥐도 갈 거예요” <참여자 7>

## 2.3 자격증 취득하기

참여자 5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장애인지도사 등 재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활용할 목적도 있지만 열심히 취득하는 가운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1, 2, 6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여 농업기사 자격증, 자동차정비,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참여자 3은 건축기사 자격을 가진 아들과 같이 사업을 계획하였다. 참여자 4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힘들게 취득했지만, 치열한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한편, 참여자 4, 7, 9는 노후에 기술은 최고의 자산으로 간주했다. 참여자 4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이공계를 전공하지 않을 것을 후회했다. 참여자 7은 기술은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50세가 넘어 용접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참여자 9는 용접기술이 있

기 때문에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니 행정사니 요즘은 자격증 따는 게 유행이잖아요 하던 사람들도 힘든데 그거 따서 뭐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예요 학원 돈 벌어 주는 거죠 농사 지으려고 농업기사 자격증 하고 농기계정비 같은 거 틈틈이 따 봤어요” <참여자 1>

## 2.4 다음 커리어 탐색하기

참여자 4는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복지업무에 종사하고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다. 참여자 4는 연령제한이 없는 공무원이 되고자 학원에 등록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요즘은 뭐 대학교가 다양하잖아요 전문대학교 나왔으니까, 사이버대학에는 삼학년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사회복지 쪽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회복지사를 뽑아줄지 안 뽑아 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지도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하면서 내 보람도 찾고 사회기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참여자 5>

## 2.5 은퇴 없는 자기사업 결심

참여자 8은 평생직장은 사라졌기 때문에 노후불안을 없애기 위해 평생의 사업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자 4는 은퇴가 없는 자영업을 준비하였다. 참여자 1은 젊었을 때부터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퇴직을 결심했다. 참여자 4는 일찍 사업을 하지 않아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3은 사업에서 성공확률은 낮지만, 소규모의 납품사업을 계획했다.

“나는 은퇴를 준비한 게 아니고 반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흔 인제 조금 넘었는데. 어 내가 기계제작쪽에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쓸 만해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쓸만할 때 나가서 내 사업해야지 다 늙어서 나오면 깡통 차더라구. 그래서 반퇴라는 말을 요 근래에 들었어요 아, 힘 있을 때 나가자 용단을 내린 거죠” <참여자 8>

## 2.6 창업분야 모색하기

참여자 2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규모를 줄여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참여자 2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업종보다 자동차 정비와 같은 틈새시장에서 사업을 결심했다. 또한 참여자 3, 4는 각각 관광사업과 소규모 분식집을 운영, 참여자 6과 9는 반려동물 사업을 계획하였다. 한편 참여자 8은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선호했으며, 사업위험을 줄이기 위해 친구들과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귀농 계획을 세웠지만, 부인이 반대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빌란데, 애들 다 시집 갔으니까, 서른 한 평 방 세 개, 나한테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반으로 줄일까 아니면 1/3이라도 줄일까. 하계 되면 돈이 좀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계 보증금 내고 그 카센터나 식당이나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두 사람이, 뭐 인건비 안 나가니.” <참여자 2>

## 3. 건강 차원

### 3.1 가중되는 건강불안

참여자 3과 4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저하를 실감하면서 건강이 재산이나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노후에 건강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5는 가족이나 재산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찍부터 건강관리에 매진하였다.

“생각해보세요. 은퇴한 후에 퇴직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 뭐 꼽아 보세요. 돈? 뭐 그렇죠. 나는 이런 것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도 없는 거고 돈도 없는 거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회사에서도 많이 일했죠. 그런데 이제 나도 생각해야겠다고 매사에 무리하지 않아요.” <참여자 5>

### 3.2 노후 건강생활 대비하기

참여자 2, 7은 퇴직하기 전부터 운동과 영영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에 투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빌릴 수 없고, 은퇴재산은 배우자와 건강”이라는 신념을 갖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였다. 참여자 2는 노후에 자식에게 피해를 주거나 요양원에 머물면서 병약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참여자 5와 8은 노후에 자신과 부모님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저한테 은퇴재산은 마누라하고 건강이죠. 은퇴해서 건강만 해도 뭐해서 뭘 먹고 살겠냐구요. 리어카라도 끌어도 먹고는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술하고 담배를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러니까 오년 전인가. 그렇게 건강에 이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딱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2>

## 4. 자산운용계획 차원

### 4.1 가족부양으로 인한 노후빈곤 불안

참여자 1, 2, 3은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취업하지 못한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녀의 결혼자금을 충당한 후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집을 팔아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힘들게 사는 선배의 사례를 보고 긴장하며 살았다. 참여자 5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딸의 유학비용을 충당하였고,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충당하느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참여자 7과 9는 부모와 배우자의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을 충당하느라 생활고를 겪었고, 모은 재산을 거의 전부 사용하였다. 참여자 9는 나이가 들면 빈곤층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 5는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까지 소득공백 기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였다.

“퇴직금이 좀 있긴 있어요. 보통사람들이 다 중간에 정산 안하는데, 뭐 딸년 등록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산해서 딸애한테 보냈어요. 애비 도리는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그날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리다가 나 강통 차는 건 아닌가, 거지 되는 건 아닌가.” <참여자 5>

#### 4.2 자녀부담에서 벗어나기

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의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참여자 4는 자신의 노후자금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녀의 고액과외와 해외 유학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참여자 6은 무리하게 딸의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다. 참여자 9는 딸의 빚을 지면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다.

“애가 대학가기 위해서는 고액과외가 정말 필요해요.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저축해야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국민연금 한계가 있는 거고 개인연금 들어 놓든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축에다가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참여자 4>

#### 4.3 소비 줄이고 저축 늘리기

참여자 1, 5, 6은 퇴직 후에 줄어드는 소득에 맞춰 살며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 욕망과 생활 규모를 줄이고 형편에 맞춰 소비습관을 개선해 나갔다. 특히 참여자 6은 생활고통을 겪고 있는 선배의 사례를 교훈삼아 지출을 더욱 줄여나갔다. 참여자 5, 9는 노후자금과 소득공백기간에 대비한 현금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하였다. 불안정한 투자상품보다 안정된 저축을 통해 노후자금을 모으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장래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다. 참여자 8은 가게 부채를 줄이려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지 않았다. 참여자 3은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해서 일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려고 했다.

“퇴직하면은 딱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수입이 주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쓸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 씹씹이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돈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뱃고래만 커지고 그 안에다가 채워 넣을 게 없으면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을 줄이듯이 조금씩 그 생활규모도 줄이고 아껴.” <참여자 1>

#### 4.4 일찍 준비못해 후회스러움

참여자 3, 4, 5는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지

못한 점, 연금과 저축이 턱없이 부족한데 맞벌이하지 못한 점, 일찍 전역하여 풍족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후회하였다. 참여자 4는 급여생활자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40세부터 재테크를 공부하였다.

“내가 지금 이것저것 뛰고 내손에 한 월 오백정도 쥐는데. 국민연금이라는게 영 뻔한 거 아니예요. 기업연금 뭐 들지도 않았고 개인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저축도 되게 부족하죠. 한 사천만원 조금 넘는데. 그런데 좀 마누라한테 미안하지만 맞벌이라도 했으면 조금 지금보다는 날텐데..., 인간이니,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후회도 되요. 근데 뭐 지금 와서 후회할들 뭐하겠어요. 어차피 세월은 지난 건데.” <참여자 3>

#### 4.5 쥐꼬리만한 연금

참여자 1, 2, 4, 9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큰 불안을 느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만큼 충분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연금도 없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공포로 여겼다. 오로지 국민연금밖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을 막막하게 느끼면서 노후자금으로 추가 근로소득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다.

“뭘, 연금도 돈이 있어야 들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갔고 사글세방에서 전세 올리고 겨우 집사고 대출받고 그러다보니까, 뭐 개인연금 같은 거 들 시간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건 뭐냐? 국민연금이잖아요, 그것도 쥐꼬리만한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이야 그래도 사지 육신 멀쩡하고 움직이니까 일해 먹고 살 수 있는데. 늙으면 어떻게 되겠냐. 늙은이 건강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참 미치겠는 거죠. 하루하루 공포만 쌓여가는 거죠. 두려움만. 겁나요. 늙어서 어떻게 될까.” <참여자 9>

#### 4.6 복지제도보다 자기노력에 의존함

참여자 4, 9는 아직 연금을 받을 연령이 아니지만 고�령자의 복지확대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 입후보자들에게

게 관심을 갖거나 투표를 하였다. 참여자 6, 7, 9는 노후 생활을 국가와 회사의 복지제도가 아니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막 빨리 진행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뭐 기초노령연금도 생기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 사회에서 주는 연금 뭐 노인복지 이런 것들. 정부는 뭐 예전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 많은 노인들 우리가 뭐 부자나라도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보장도 솔직히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여자 6>

#### 4.7 연금으로 노후생활 대비하기

참여자 5, 6, 7, 9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연금을 가입하였다. 자녀의 유학요구를 거절하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자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가입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5는 최대한 오래 일하고 연금을 늦게 받을 계획을 세웠다. 참여자 7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반대하였다.

“주변에서는 친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만이 걱정을 해요. 잘 다니는 회사 왜 때려 칠려 그러냐. 저는 최후의 안전핀은 마련해 뒀어요. 그게 뭐냐 개인연금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이야 택도 없죠. 이렇게 최후의 안전핀 마지막으로 기밀 언덕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은 든든해요.” <참여자 8>

#### 4.8 안전한 투자지향

참여자 1, 2, 6, 9는 아파트 평수를 줄이거나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선호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한편 참여자 5는 현금보다 펀드,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고려하였다. 참여자 5, 6은 재무설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보를 취득해서 은퇴자금을 준비하려고 했다.

“지금 아파트 한 채 있고 현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까 유가증권 주식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아 내가 지금 평생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부동산 쪽은 별로 매력이 없고 어쨌든 진짜 한방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펀드가.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려 하다가 마누라 때문에 다시 포기했지만 그래도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겠다. 조금 내 형편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돈도 없고” <참여자 5>

### 5. 사회참여 차원

#### 5.1 인간관계 개선에 주력

참여자 2, 3, 5는 노후의 인간관계를 재산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지역주민, 동창회, 종교단체의 지인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참여자 4는 이익중심의 관계를 추구한 반면, 참여자 8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를 선호하였다.

“근데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이 들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아니 소주 한 잔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걸리에 파전도 한 장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그래서 인제는 서서히 교제 범위를 넓혀가요.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하고도 집에 오면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참여자 5>

#### 5.2 여가활동에 대비하기

참여자 5, 6, 7, 8은 노후에 가치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취미나 자원봉사를 계획하였다.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청소년지도사, 문화재해설사, 숲해설사, 애완동물조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댄스, 요리, 컴퓨터 등을 배우면서 여가활동을 준비하였다. 한편 참여자 6은 퇴직 후에 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다.

“퇴직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자원봉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원봉사 하는 거 몸으로 때우는 것도 중

요하지만 글썩요, 저는 좀 더 전문적인 걸 하고 싶더라고요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뒀습니다.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시험도 봐야하고 연수도 갔습니다. 3백일 회사에 휴가 내요.” <참여자 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40~50대 근로자의 은퇴준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은퇴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현역시절에 낮은 임금 수준과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등으로 인해 노후에 대비한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도 노후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일자리와 평생 일할 수 있는 창업을 모색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재무적 은퇴준비에 한정되지 않고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가족, 직업, 건강, 자산운용, 사회참여 차원의 은퇴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은 재무적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인생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은퇴준비의 4가지 차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부부중심의 은퇴설계를 설계하도록 지

원해야 한다. 현재 은퇴하는 중장년층은 생애주기가 길어지고, 자녀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본인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현실에서 자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인은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준비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먼저 자녀부양 부담에서 벗어나거나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고, 은퇴 후 부부 중심의 삶을 추구하였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재취업과 창업의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에 비해 근로소득과 노후 연금소득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은퇴 후 삶의 의미보다 생계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③ 노후생활의 건강불안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자산운용계획의 선택폭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자산운용은 여유자금 측면이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 충족의 성격이 강하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과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현재 은퇴 후 사회참여 욕구는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노후 생활비를 보충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참여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사회참여와 생계형 직업을 연계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인 은퇴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인정하고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다. 자격증과 기술을 활용한 재취업 일자리를 찾고, 급여수준이 낮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하였다. 자녀독립을 통한 노후자금 확보, 퇴직 전부터 건강습관 형성, 소득단절에 대비한 소비 줄이기, 안전한 금융상품 선택,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 현실적인 은퇴준비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은퇴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은퇴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에 특화된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창업과정의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재취업 일자리를 선택할 때 눈높이가 낮고 업무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으로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출신의 퇴직인력 활용은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은퇴준비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핵심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은퇴준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무중심의 은퇴준비 교육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건강, 사회참여, 일자리 등의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은퇴설계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퇴직 후에 발생하는 자녀양육비와 가계 대책, 금융상품과 보유 부동산의 활용, 유용한 건강정보, 현실적인 재취업 대책, 취미와 여가활용 방법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은퇴준비 지원과정에서 은퇴자금 확보와 풍요로운 은퇴생활 설계보다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 보도자료, 2016 고령자 통계, 2016.  
 [2]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6.  
 [3] 김유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실태와 정책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 리뷰, 8월호, 2016.  
 [4] 김동훈, 권형구, “국민연금소득대체를 분석과 정책적 의의,” 리스크관리연구, 제27권, 제1호, pp.67-103, 2016.  
 [5] 한국노동연구원,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를 국제비교,” 월간 노동리뷰 통계프리즘, 3월호, pp.100-102, 2015.  
 [6] 정경희, 2014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

원 수탁정책보고서, 2014.  
 [7] 류건식, 이태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실태 및 대책방향, 보험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MONTHLY, 제10호, 2017.  
 [8] 이덕로, 박재석, “중소기업의 노사파트너십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3호, pp.129-154, 2010.  
 [9] 심우일, 장운섭,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태와 향후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Kosbi Issue Paper, 제55권, pp.1-14, 2009.  
 [10] 김남순,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 배문조,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107-1122. 2009.  
 [12] 광인숙, 홍성희, 이경희, “남성 직장인의 은퇴 계획 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2-42, 2007.  
 [13] 김재호,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보건복지포럼, pp.62-73, 2014.  
 [14] 임재용, 중장년층의 직업별 노후준비에 관한 의식조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5] 정운영, 백은영,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pp.115-139, 2009.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0세 시대,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지원 본격 실시, 2016.  
 [17] 홍성희, 광인숙,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9-104, 2007.  
 [18]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층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10권, 제3호, pp.129-155, 2007.  
 [19] 차경옥, 박미연, 김연주,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제6권, 제1호, pp.149-163, 2008.
- [20] 정운영, 백은영,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pp.115-139, 2009.
- [21] 진귀연, 배문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3-24, 2010.
- [22] 백은영, “베이비 부머의 은퇴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357-383, 2011.
- [23]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준비 관련요인 탐색,”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133-162, 2012.
- [24] 정순돌, 이현희,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 붐 세대와 예비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09-231, 2012.
- [25] 백은영, 정순희, “베이비부머의 재정현황과 주택 자산이 은퇴준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pp.141-160, 2012.
- [26] 박창제, “베이비 부머와 전 베이비 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63호, pp.309-335, 2014(3).
- [27] 정순돌,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5-21, 2015.
- [28] 박창제,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직전세대의 사적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pp.305-333, 2016.
- [29] 최현자, 주소현, 조혜진, 김민정, 김정현,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연구,” 조사연구, 제13권, 제3호, pp.63-87, 2012.
- [30] The WHOQOL Group,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Medicine, Vol.41, No.10, pp.1403-1409, 1995.
- [31] D. Felce and J. Perry, “Quality of Life :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16, No.1, pp.51-74, 1995.
- [32] R. A. Cummins, *Assessing Quality of Life in Brown, Roy(e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Cheltenham: Stanley Thorne (Publishers) Ltd. 1997.
- [33] M. R. Hagerty, R. A. Cummins, A. Ferriss, K. Land, A. C. Michalos, M. Peterson, A. Sharpe, M. J. Sirgy, and J. Voge,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55, No.1, pp.1-96, 2001.
- [34] R. L. Schalock,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Vol.48, No.3, pp.203-216, 2004.
- [35] 김미령,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1권, 제0호, pp.7-34, 2011.
- [36]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제58권, pp.325-352, 2012.
- [37] <https://www.kli.re.kr/kli/index.do>.
- [38] <http://institute.nps.or.kr/jsppage/research>
- [3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 노후준비 수준은 몇 점? 스스로 알아보는 은퇴성적표, 2012.
- [40] S. Gulsecen and A. Kubat, “Teaching ICT to Teacher Candidates Using PB: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ol.9, No.2, pp.96-106, 2006.
- [41] R.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SAGE, 2009.
- [42] J. Gerrings,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 No.2, pp.341-354, 2004.



저 자 소 개

이 형 중(Hyung-Jong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문학사)
- 2011년 2월 : KDI국제정책대학원 자산운용 경영학과(MBA 석사)
- 2015년 2월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금융보험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저출산·고령화, 은퇴설계, 중장년진직

이 한 덕(Han-Duck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88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경영학 석사)
- 1992년 12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경영학박사)

▪ 현재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금융보험 전공교수

<관심분야> : 은퇴설계, 손해보험, 위험관리